

# ‘고삐 풀을 구멍 없는 소’ 뜻 물음에 활연 대오

경허 스님 수행 일화 ① - 시체 준비한 마을서 발심

경허(鏡虛: 1849~1912)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조이다. 스님은 1849년 전주에서 출생해 9세 때, 경기도 과천 청계산에 있는 청계사로 출가했다. 법호는 경허(鏡虛), 법명은 성우(桴牛)이다.

경허 스님은 억불승유로 바람 앞 촛불과 같던 때 선택을 되살린 선지식이다. 큰 깨달음을 얻어 대자유인의 경지에 오른 스님의 도리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는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히 가늠할 수가 없다. 경허 스님의 행적은 어떤 때는 심산유곡에 깃들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끄러운 저자 한복판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나라 하게 나타난다.

스님은 ‘고삐 풀을 구멍 없는 소’를 확연히 안 뒤 6년 동안의 보임(保任)을 마치고 옷과 탈바가지, 주장자 등을 모두 불태운 뒤 무애행(無碍行)에 나섰다.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을 맞아 만행보살 경허 스님의 일화 연재를 통해 선지식의 진면목을 들여다본다.

경허 스님은 20대에 동학사(東鶴寺)에서 대강사로 이름을 떨친 대강백이었다. 스님은 경(經)은 물론이고 <장자(莊子) 곧 <남화경(南華經)까지 속독(熟讀)해 내·외전을 두루 섭렵하고 있었다.

대강백이 머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학사 강원은 사방에서 구름같이 몰려드는 학인들로 초만원이 이었다.

1879년 여름, 강사 8년으로 30대에 접어든 경허 스님이 옛 은사 계허(桂虛) 스님을 뵈려고 경기 안양 근교 청계사(淸溪寺)로 향했다.

길을 가던 중 천안 근처에서였다. 경허 스님은 갑작스런 뇌성 벽력과 함께 역수같이 피붓는 소낙비를 만나 어느 초가 처마 밑에 있어야 했다. 얼마 후 집 주인이 나타났다.

집집마다 호열자(몰레라)에 걸려 쓰러진 주검들이 즐비했다.

당시 몰레라는 전국적으로 불치의 전염병이었다. 세찬 비바람 속에 그 촌락을 벗어난 경허 스님은 심한 현기증으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웠다.

“나 또한 전염병에 걸리면 죽지 않을 수 없다. 저 송장들과 다를 바 없는 나 역시 생사(生死)의 낭떠러지에 와 있지 않은가. 하나 살고 죽는 문제도 수습할 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며 절없이 중 노릇을 하다니, 교리문자(敎理文字)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자신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부처님의 길로 중생을 인도한다 함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이제라도 스스로가 생사를 영단(永斷)하는 길이 있다면 오직 참선(參禪)하는 길 밖에 더 있겠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스님은 한시가 소중했다. 경허 스님은 은사스님을 뵈러 청계사로 향하던 발걸음을 동학사로 되돌렸다.

돌아오는 동안에도 스님은 어서 생사문제를 해결해하겠다는 분심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아무리 1700공안의 화두를 헤아려 보았으나 의심의 구름은 좀처럼 걷힐 줄 몰라 캄캄 절벽이었다.

갑자기 한 화두가 스님을 사로잡았다.



그림 · 박구원

“나하나 살고 죽는 문제도 수습할 줄 모르면서 중생을 인도 하겠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것”

나귀의 일 아직 안했는데 [驢事未去] 말의 일이 닥쳐 왔음이며 [馬事到來]

스님의 화두에 대한 의심은 더 큰 의심의 구름을 일으킬 뿐이었다. 한 생각에 젖어든 경허 스님은 동학사에 돌아오자마자 강원의 학인들을 다 불러 버리고 조실 방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그리고는 단정히 앉아 오행정진에 들어갔다.

경허 스님은 영운(靈雲) 선사의 화두 ‘나귀의 일, 말의 일’을 참구했다. 좌선 삼매 중 졸음이 몰려왔다. 조는 시간도 아까웠다. 스님은 수마를 쫓기 위해 물리치고자 날카로운 송곳을 턱 밑에 세워놓고 참선을

했다. 스님이 정진하다 깜빡 깜빡 졸 때마다 스님의 이마에는 선혈이 흘렀다. 살이 찢린 자리에는 피가 엉겨 붙었다. 얼굴은 흡사 두꺼비 등껍질과 같았다.

마침내! 경허 스님은 수마(睡魔)의 조복을 받으며 화두에 대한 의심이 샘물 솟듯 하여 한 생각이 영원에 이르는 경지에 다달았다.

스님의 화두를 향한 일념은 은산철벽도 꿰뚫을 기세였다. 경허 스님은 오행정진을 이어갔다.

참선 석 달만의 어느 날이었다.

동짓달 보름께 동학사 학명도일(學明道) 스님이 아래 마을에 출타했다가 이 진사(李進士)라는 처사를 만났다.

“스님, 요새 중노릇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 읽고 열불하며 주력(呪力)하고 가람 수호하는 일과와 연속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중 노릇을 잘못하시면 소가 되고 맙니다.”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소가 안 됩니까?”

산승의 물음에 이 진사의 말이 이어졌다.

“소가 돼도 ‘고삐 풀을 구멍이 없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은 대중 가운데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다들 궁금하기만 할 뿐이었다. 이는 대중이 아무도 없자 학명 스님은 ‘정진 중인 조실 스님께 여쭙아겠다’고 생각했다.

학명 스님이 경허 스님 방을 두드렸다.

“스님께서는 ‘고삐 풀을 구멍이 없는 소’의 깊은 뜻을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경허 스님은 ‘고삐 풀을 구멍이 없는 소’의 도리를 묻는 물음에 활연 대오(豁然大悟)했다.

때는 1879년 11월 보름 무렵이었다. 경허 스님의 대오각성은 한 수좌의 한 소식을 뛰어넘을 한국 근대선의 서막이 오름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 순간, 천대대지가 송두리째 빠져나가고 물아(物我)가 함께 공(空)해 백천법문(百千法門)과 무량한 묘의(妙意)가 한 생각에 문득 재가 됐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소가 돼도 고삐 풀을 구멍이 없다고 해야죠.”

“고삐 풀을 구멍이 없는 소?”

진사의 말에 학명 스님은 무슨 뜻인지 몰라 얼떨떨하기만 했다. 그 옆에 있던 사미승 동은(東隱)도 마찬가지였다.

동은 사미는 이 진사의 아들 이원규로 동학사에서 행자 수임 중이었다.

학명 스님과 동은 사미승은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절에 올라오자마자 여러 대중들 앞에서 물었다.

“대중들은 중 노릇 잘못하면 소가 되는 이치를 아십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http://www.shcandle.com)

자연을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힐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 P.C 합합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한인로즈마리·한인라벤더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접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사자발약숙양초

·한봉밀납양초

① 약초 90cm	② 약초 연봉 한기종	③ 약초 돈타레	④ 약초 2호	⑤ 약초 3호	⑥ 약초 4호	⑦ 약초 5호	⑧ 약초 6호	⑨ 약초 7호	⑩ 약초 8호	⑪ 약초 9호	⑫ 약초 10호	⑬ 약초 11호	⑭ 약초 12호	⑮ 약초 13호	⑯ 약초 14호	⑰ 약초 15호	⑱ 약초 16호	⑲ 약초 17호	⑳ 약초 18호	㉑ 약초 19호	㉒ 약초 20호	㉓ 약초 21호	㉔ 약초 22호	㉕ 약초 23호	㉖ 약초 24호	㉗ 약초 25호	㉘ 약초 26호	㉙ 약초 27호	㉚ 약초 28호	㉛ 약초 29호	㉜ 약초 30호	㉝ 약초 31호	㉞ 약초 32호	㉟ 약초 33호	㊱ 약초 34호	㊲ 약초 35호	㊳ 약초 36호	㊴ 약초 37호	㊵ 약초 38호	㊶ 약초 39호	㊷ 약초 40호	㊸ 약초 41호	㊹ 약초 42호	㊺ 약초 43호	㊻ 약초 44호	㊼ 약초 45호	㊽ 약초 46호	㊾ 약초 47호	㊿ 약초 4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창 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 766-0242~3 / 팩스 031) 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이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지끈거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약 170g

구입문의: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